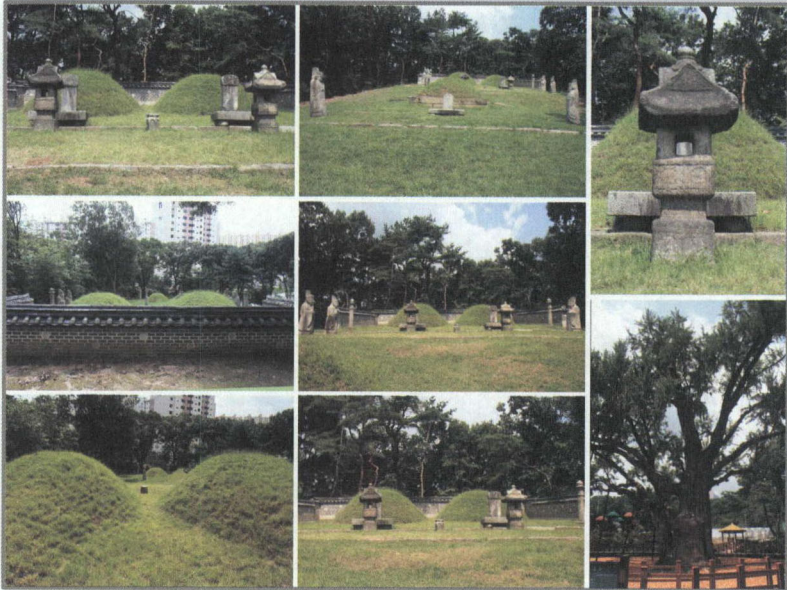


### 3. 묘

## 서울특별시

---



## 연산군묘(燕山君墓)

### 1. 연혁

묘 주 : 연산군[1476~1506]과 부인 거창 신씨[?~1537]

위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지정번호 : 사적 제362호

봉묘연대 : 1506년(중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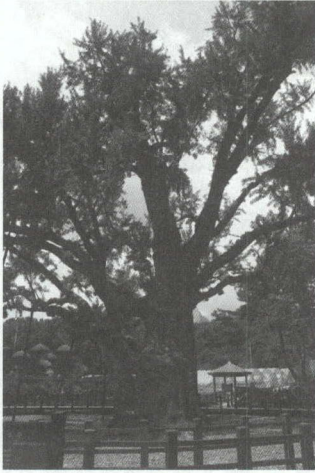
전묘연대 : 1513년(중종 8)

원묘형태 : 단묘

### 2. 원묘 소개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서 하차한 후 신방학중학교를 지나 신동아아파트단지로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 뒤쪽에 위치한 연산군묘를 만날 수 있다.

연산군 묘는 조선 10대 연산군(재위 1494~1506)과 부인 거창 신씨의 무덤이다. 연산군은 성종의 큰 아들로 성종 7년(1476)에 태어나 1494년 왕위에 올랐다. 두번씩이나 사화를 일으키는 등 성품의 광폭함이 드러나자 진성대



연산군묘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중종반정이 일어나, 1506년 왕직을 박탈당하고 연산군으로 강봉되어 강화 교동으로 추방되었다가, 그 해 1506년에 죽었다. 부인 신씨가 연산군 무덤을 강화에서 현재의 이곳으로 옮겨 달라 청하여 옮기게 되었다.

무덤 주변에는 연산군의 딸과 사위의 무덤도 있으며, 묘(墓)의 시설은 대군(大君)의 예우(禮遇)로 장례하여 봉분(封墳) 곡장(曲牆) 혼유석(魂遊石) 장명등(長明燈) 향로석(香爐石) 재실(齋室)이 갖추어져 있으나 병풍석(屏風石) 석양(石羊) 석마(石馬) 사초지(莎草地) 문인석(文人石) 등은 세우지 아니하였다.

기록은 연산군(燕山君)의 묘비(墓碑) 전면(前面)에 ‘연산군지묘(燕山君之墓)’라 새겨져 있고 후면(後面)에는 ‘정덕팔년이월 이십일장(正德八年二月二十日葬)’이라 새겨져 있다. 부인신씨(夫人愼氏)의 묘비(墓碑)는 전면(前面)에 ‘거창신씨지묘(居昌愼氏之墓)’ 후면(後面)에 ‘??유월이십륙일장(??六月二十六日葬)’이라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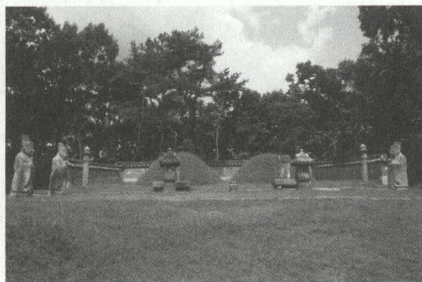


연산군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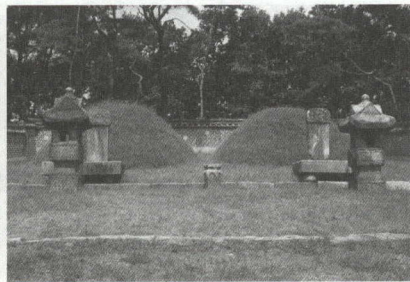


### 3. 묘주 소개

연산군은 성종 7년(1476) 성종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휘(諱)는 융(隆)이며, 어머니는 폐비 윤씨(尹氏)이다. 성종 14년(1483) 2월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성종 25년(1494), 12월 성종이 승하하자 즉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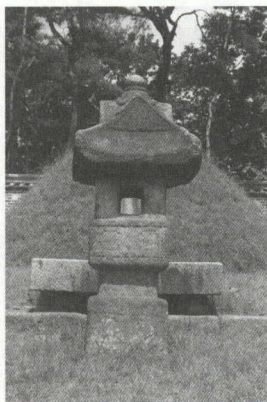


연산군묘 원경



연산군묘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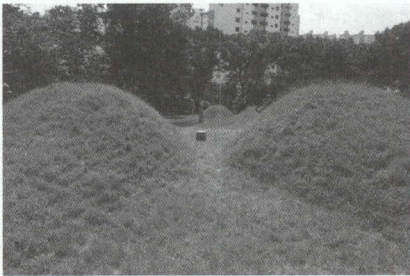
연산군은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의 침입에 대비하여 비용사(備戎司)를 두어 병기를 제조하고, 변경지방으로의 백성들의 이주를 독려, 혹은 《국조보감 國朝寶鑑》,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 등의 수정 같은 활약도 있었지만, 크게 잘못된 정책을 뒀기에는 역부족이다. 연산군 4년(1498)에는 《성종실록》 편찬 때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켰고, 1504년에는 생모 윤씨(尹氏)의 폐비사건을 문제로 삼아 많은 사림학자들을 희생시킨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났다. 이러한 실정(失政)과 성품이 광폭함으로 인하여 연산군 12년



연산군묘 장명등

(1506) 9월 성희안(成希顔), 박원종(朴元宗), 유순정(柳順汀) 등의 주동으로 성종의 둘째아들 진성대군(晉城大君)이 옹립되는 중종반정(中宗反政)을 당하여 왕위에서 쫓겨나고, 연산군으로 강봉되어 강화(江華) 교동(喬洞)에 추방되었다가 그해 11월 31세로 병사하여, 그 곳에 장사지내었다.

왕 또는 왕비의 무덤을 능(陵)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연산군은 비록 왕을 지내었으나 그 지위가 군(君)으로 강봉되었기 때문에 무덤을 묘(墓)라 하였다. 그 후 중종 7년(1512) 12월 부인 신씨가 상소하여 묘를 강화에서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선영(先塋)이며 연산군의 사위와 딸의 무덤이 있는 양주군 해동면 원당리(현 도봉구 방학동)로 이장하기를 청하여, 이듬해(1513) 2월 왕자군(王子君)의 예(禮)로 이장하고 양주군의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뒤에서 바라 본 연산군묘(좌우)

연산군의 부인 거창군 신씨는 영의정 거창부원군(居昌府院君) 신승선(愼承善)의 딸이며, 성종 19년(1488)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연산군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비로 책봉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과 함께 폐출, 거창군부인으로 강봉되어 정청궁(貞淸宮)에서 거처하다가 중종 32년(1537)에 별세하였다.

#### 4. 연산군관련기사

##### 《燕山君日記》總序

○ 燕山君 諱[愷] 成宗康靖大王 長子, 母廢妃 尹氏 判奉常寺事 (起畷[起畷] 之女 以 成化 丙申十一月初七日丁未生 癸卯二月己巳 册封世子 遣領中樞 韓明澮 等 請命于京師 五月丁酉 帝遣太監 鄭同等賜勅封 少時不好學 東宮僚屬有勸戒者 深銜之 及即位 宮中所行多不善 外庭猶未之知 晚年 荒悖淫縱 大肆虐政 誅殺大臣 臺諫侍從 殆盡 至有炮烙斲胸寸斬碎骨飄風之刑 遂廢徙 喬桐 封 燕山君 居數月 以疾終 年三十一 在位十二年